

(註) 「四重方塔ニシテ高サ十三尺 最下ノ塔柱ニ佛像彫到シアリ稍完全ナルモ少シク傾ケリ」라 있다.

二、新岱里三層石塔

甲川面 新岱里의 鳳腹寺入口의 俗稱「질등」이라는 山麓발가운데 高約 5m의 石塔一基가 遺存한다. 現地洞民들의 말에 依하면(沈相雲五三歲、金炳善三〇歲、兩氏談) 現鳳腹寺의 原位置가 바로 여기였다고 傳한다는 바 이말 一帶가 寺址로서 隣近에는 瓦片이 散存하며 石塔南方에는 高三m의 언덕이 約四〇m 길이로 되어있어 過去の 石築으로 짐작된다. 石塔은 現在 三層屋身까지로 三層屋蓋와 그위 露盤이 떨어져 있으며 基壇下部는 埋沒되어 있어서 그 以下를 알 수 없다. 現露出部分의 基壇面石은 四枚로 짜여있고 撐柱는 없으며 甲石은 二枚石으로 되었는데 二段의 副椽이 있어 注目되었었다. 甲石上面에는 받침이 없 이 平坦하여 그위 塔身을 받고있는데 初層塔身은 二石으로서 縱으로 結構되었고 그外는 一石이며 各塔身에는 兩隅柱가 整然히 刻出되었었다. 各屋蓋石은 받침이 五段씩이고 上面에는 二段의 角形받침으로 그위 屋身을 받고 있다. 落水面은 平薄하나 傾斜는 그리없는 편이고 轉角 四隅마다 風磐裝飾이 附着되었었던 小圓孔이 있으며 轉角의 返轉도 적은 편이어서 全體적으로 보아 輕快하지는 못하다. 落下된 三層屋蓋石上面에는 徑一二cm 深一〇・五cm의 椽柱孔이 있으며 露盤에는 徑一二cm의 圓孔이 貫通되어 있다. 基壇部나 落水面等 各部手法으로 보 아 年代는 麗代로 推定된다. 이 石塔에 對한 記錄은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五二九頁에 보인다.

實測值(cm)는 塔身高一層 八六 二層 三三・五 三層 二八 幅一層 九〇 二層 七二 三層 五七・五.

屋蓋長 一層 一四七 二層 二二〇 三層 一〇〇이다.

(一九六三年 八月二日調査).

公州 西穴寺址와 遺物

金 永 培

公州邑에서 西쪽으로 約一・五料쯤 가면 日落山이 우뚝 솟은 中腹에 東向하여 石窟이 있고 石窟에서 南쪽으로 約百m쯤 내려 가면 寺址가 남아 있는데 東國輿地勝覽 公州編 佛宇條에 「西穴寺在望月山」이라고 記 錄된 西穴寺가 바로 이 寺址인 것이다. 公州 附近에 遺存한 百濟時代 寺 址는 大部分石窟을 利用하여 窟院修行한 痕跡을 찾아 볼 수 있는데 其 中에서도 大規模의 石窟이 西穴寺와 南穴寺이다. 그런데 이들 石窟寺址 에서 百濟時代의 遺構나 遺物等의 檢出은 대단히 稀少하여서 百濟時代 에 開山된 寺址라고 斷定하기가 매우 어려운 形便이었으나 最近에 西穴 寺址에서 「西穴寺」在銘瓦片、百濟蓮華文瓦當等을 비롯하여 新羅統一期、 高麗期의 各種瓦類가 發見되었고 石窟의 入口 築臺 또는 附近에서 出 土된 石塔部材等 좋은 資料를 얻을 수 있었다. 昨年踏查時에는 金堂址로 推定되는 곳에 民家가 二棟 자리 잡고 있었었는데 塼에서 出土된 七個의 礎石을 한데 모아 놓은 것이 있었다. 이미 原位置를 떠났음으로 原狀態 를 把握할 수 없었으나 西穴寺址에서 多數의 礎石이 發見되기는 처음 일 이었다. 西穴寺址를 爲始하여 公州 附近에 遺存한 百濟時代 各 寺址에 서 瓦當等 重要な 資料가 過去 日本人에 依하여 多數 收拾되었던 모양 이나 全部 私有化되어 博物館에는 한쪽도 남아 있지 않다. 公州 附近의 百濟寺址로서 石窟을 具備한 몇 곳 中에서 于先 西穴寺址의 礎石을 들 어 簡單히 記錄을 남기고자 하는 바이다.

一、寺址

日落山 中腹에 東向하여 傾斜된 山地를 階段으로 均地하여 大畧三 段階로 築臺를 쌓아서 建築物을 造營하였던 것으로 推測되는데 第一段 의 幅이 約十五m、第二段이 約二十m、第三段이 約二十五m로 區分

되어 있고 第三段地가 金堂址로 推定되며 礎石도 여기에서 出土된 것이다. 第二段地에는 寮舍가 있었던 것 같으며 井址가 남아 있고 第一段地에는 中門址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二、石佛

寺址에 放置되었던 것을 現在는 公州博物館에 옮겨 保管中이며 如來坐像이 二軀、毘盧舍那佛이 一軀인데 佛像二軀는 首缺이고 座臺는 具備된 것이 一軀、其他二軀는 一部分만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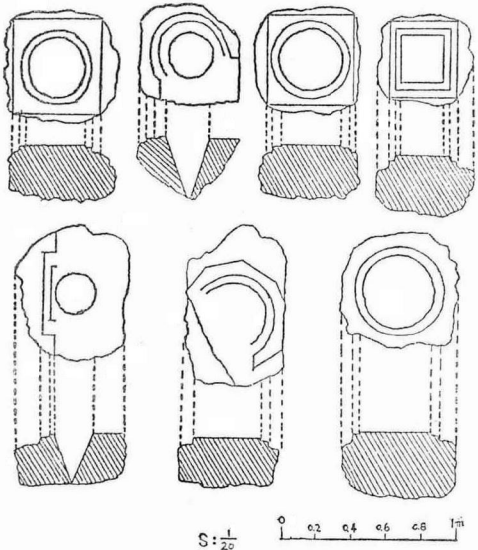
三、石塔部材

石窟의 入口를 出入하는 階段石으로 利用된 것이 四個가 있고 昨年 石窟登路에서 道路修理를 하다가 發見된 것이 一個 모두 五個가 남아 있는데 石塔의 基壇部材로서 重要な 資料인 것이다.

三、礎石

金堂址에서 出土된 것으로서 거의가 다 柱座가 造出되었으므로 其中 一個가 百濟礎石樣式을 간직하고 있다 (圖面參照).

四、瓦類



孫秉憲實測製圖

推定 金堂址에서 發見된 百濟八葉蓮瓣瓦當과 唐草瓦、新羅統一期 十六瓣瓦當 및 高麗期의 瓦當等이 多數檢出되었으며 文字瓦로서 西穴寺銘瓦片이 蒐集되어 寺名의 確

定을 얻을 수 있는 것이 多幸이라 하겠다.

五、石窟

이 石窟은 自然的으로 이루어진 것을 利用하여 窟院修行을 한 것인데 窟內의 넓이가 約五十坪가량 되며 窟內에는 佛像을 奉安하였던 臺層이 있고 石間에서 精水가 솟고 있다. 石窟은 近世에 人工이 많이加하여졌으며 基督教禮拜堂으로 利用하고 있다.

仙巖寺의 獅子塔

崔容完

仙巖寺境內에 들어서면 바른편으로 浮屠의 一群이 있고 그 左端에 略 4m 높이의 「華山大師 舍利塔」을 본다.

華巖寺 三層 四獅子塔이나 忠北 堤川의 獅子頻迅寺 石塔에 비교될만한 結構은 아니지만 獅子塔들 中에 最末期의 特徵을 보이고 있다.

四모양으로 地臺石을 두르고 下臺石은 二十六cm 높이에 一四〇cm 폭의 一石으로 四方에 可보양의 완자를 刻하고 그위에 四獅子와 立佛을 別個로 造成하여 前面二首와 立佛은 前面을 向하고 後面二首는 後面을 向하였다. 獅子는 입이 길게 나오고 머리와 앞발이 過大하여 獅子라 하기 보다는 獅子를 상징한 動物의 形態이다. 心柱의 位置인 中央에는 立像을 세웠는데 法衣는 두터움고 바른손 팔목에서 엄주가 내려다. 발아래는 다 른 獅子像과 같이 板石이 있는데 머리위는 아무 장식없이 翼部材와 약간의 간격을 내었다. 따라서 構造物처럼 느껴지지 않으며 結局 塔身部는 四獅子의 힘으로 받고 있다. 甲石은 欄干을 刻하여 두르고 四面에 花葉을 刻하였다. 欄干은 甲石과 一石인데 一面을 三間으로 나누고 연봉, 팔모, 사모로 모양을 이룬 童子柱를 세웠다. 평도란의 中央에는 사모의 받침 童子柱를 받쳤고 이와 一石으로 屋身피임을 浮刻하였는데 二重물 덩으로 위는 仰蓮을 아래는 伏蓮을 刻했다. 初層屋身은 幅보다 높이가